

1 초기 절차

(1) 화재 발견

- 최초로 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경보를 울려 전 선원에게 화재를 알린다.
- 2명 이상 발견 시에는 1명은 경보를 울리고, 다른 1명은 적절한 휴대식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작
- 화재 발견 보고 시, 통풍설비의 차단을 위한 정확한 화재 위치와 화재의 종류를 보고

(2) 진압 절차

① 화재상황의 판단

- 소화대의 지휘자는 가능한 빨리 다음의 사항을 판단
 - + 화재의 종류
 - + 적합한 소화제
 - + 적절한 접근방법
 - + 화재 확산방지책
 - + 소요인원 및 업무분담
- 전화, 무선통신기, 통신원 등 적절한 수단으로 선교와 소화대 사이 통신 유지

② 소화작업

i. 직접소화

- 소화대가 직접 소화장비를 들고 화재현장에 들어가 소화하는 방법
- 소규모 화재 시 가능하며, 대규모 화재 시에는 열, 가스, 연기 등으로 접근이 어려움

ii. 간접소화

- 화재현장에 직접 접근하기 힘든 대형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법
- 화재가 선박의 하부에서 발생한 경우 효과적
- 화재현장으로 통하는 모든 문을 폐쇄 후, 현장으로 만능노즐을 집어넣어 물을 분사하거나 고정식 이산화탄소 또는 포말을 방출

* 한국해양수산연수원(2017), 「상급해상안전」, pp.165-168

③ 통풍

- 대형화재에 시행하는 간접소화법은 모든 통풍설비 폐쇄
- 소규모화재에 시행하는 직접소화법은 효과적인 통풍을 하여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여소 생성물을 선박외부로 방출
-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대부분 유독가스나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이므로 통풍은 중요
- 수직통풍 : 화재현장의 상부 개구를 통해 유해성분을 직접 대기 중으로 방출
- 수평통풍 : 화재현장의 풍상·풍하측 문을 열어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여 통풍

2 화재선박의 조선편법

- 즉시 선속 감소 및 모든 기계 통풍설비 폐쇄
- 선박의 방향 및 풍력·풍향에 따라 화재의 필수조건인 공기의 공급량과 압력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, 공기의 압력을 저하시키기 위해 선박을 정지 또는 풍하측으로 저속운전
- 바람이 강할 때에는 효과적으로 진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바람이 화재를 선외로 끌어내는 방향으로 선박을 조선 ex) 선외 화재 시 선속에서 맞바람

3 사후 처리

- 소화 후 남은 불씨, 특히 속에서 타들어가 다시 화재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여 다른 화재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
- 소화작업 종료 전 조치사항
 - † 화재 발생구역의 각 통로를 원상태로 개폐
 - † 환풍구의 개폐 확인
 - † 소화장비 대체 및 복구
 - † 호흡구 없이 진화된 화재 발생구역에 진입 가능 여부
 - † 선원 1명을 배치하여 화재의 재발을 감시
 - † 불에 탄 모든 것을 분해, 검사 및 수리
 - † 화재에 의한 선체 손상 여부 검사